스포츠 동아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sportsdonga.com 10판

김광현(SK)의 오랜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미국의 한 매체가 30일(한국시간) "김광현이 내년부터 메이저리그에서 뛰길 원한다"고 보도하면서 KBO리그 대표 좌완 에이스의 미국행이 더욱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김광현의 선택과 SK의 결단이 주목받는 이유다.

김광현·린드블럼 ML행 비행기 탈까

美언론 "ML서 주목해야할 선수들"
SK측 "프리미어12 끝난 뒤 협의"

메이저리그(MLB) 무대를 향한 김광현(31·SK 와이번스)의 오랜 꿈은 마침내 이뤄질 수 있을까. 현지 언론이 김광현에 주목하면서 그의 행보에도 기대어린 시선이 뒤따르고 있다.

미국 매체 디애슬레틱의 칼럼니스트 켄 로젠탈은 30일(한국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한국의 좌완투수 김광현을 주목해야한다"며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김광현은 2020년 메이저리그에서 뛰길 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의 소속팀인 SK는 여전히 고민 중"이라면서 "올해 31살인 김광현은 2019시즌 KBO리그에서 190.1이닝을 던져 평균자책점(ERA) 2.51에 180삼진 38볼넷을 기록했다"고 보충 설명했다.

김광현이 MLB 무대에 진출하기 위해선 구단의 승인이 필요하다. 2016시즌 후 SK와 프리에이전트(FA) 4년 계약을 맺어 2020년까지 SK 선수 신분이다. 당초 SK는 2019시즌 페넌트레이스 우승을 비롯해 통합우승의 성과를 내면 대승적 차원에서 김광현의 해외 진출에 적극 힘을 실어주려는 뜻이 있었다.

하지만 시즌 막판 상황이 급변했다. 두산 베어스에 정규시즌 역전 우승을 허락했고 플레이오프에서도 3연패로 허무하게 탈락해 별다른 성과 없이 최종 3위의 성적표를 받았다. 새 시즌 KBO리그 정상 탈환에 도전해야하는 입장에서 팀 에이스 김광현의 전력 이탈은 큰 부담이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51세 총각' 김건모 내년 초 장가 간다

〈1월30일〉

예비신부는 30대 유학파 피아니스트 장지연씨

내년 1월 결혼하는 51세의 연예계 '대표 노총각' 김건모(작은 사진)의 예비신부인 피아니스트 장지연 씨(38). 장 씨가 2011년 발표한 뉴에이지 계열 음반 'Dunamis'의 재킷 사진에서 우아한 매력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출처 | 멜론 홈페이지

지난해 지인 소개로 만나 1년여 열애
"부친상 등 어려운 시기에 큰 힘 돼줘"

주변에 알리지 않고 극비리 결혼준비
이무송·태진아·이상민 "놀랍다" 축하

연예계 대표적인 '노총각'인 가수 김건모(51)가 13세 연하의 피아니스트와 결혼한다.

30일 가요계에 따르면 김건모가 지난 1년여 동안 사랑을 쌓아온 피아니스트 장지연 씨(38)와 내년 1월30일 결혼식을 올린다.

두 사람은 지난해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인연을 맺었다. 가수와 피아니스트로서 음악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사랑을 나눠왔다. 이날 가요계 한 관계자는 "김건모가 5월 부친상을 당한 뒤 어머니까지 한때 편찮아 걱정이 많았다. 힘든 시기를 연인과 함께 이겨내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건모는 최근 이사해 신혼집 마련을 위한 준비를 한 게 아니냐는 시선도 받는다.

그의 예비신부 장 씨는 한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버클리음대에서 실용음악을 공부했다. 2011년 뉴에이지 계열의 음반을 발표한 바 있다. 1970년대 조경수의 '아니야', 태진아의 '잊지는 못할 거야' 등 인기곡을 쓴 작곡가 장욱조의 딸이다. 또 드라마 '이산' '주몽' 등에 출연한 연기자 장희웅의 동생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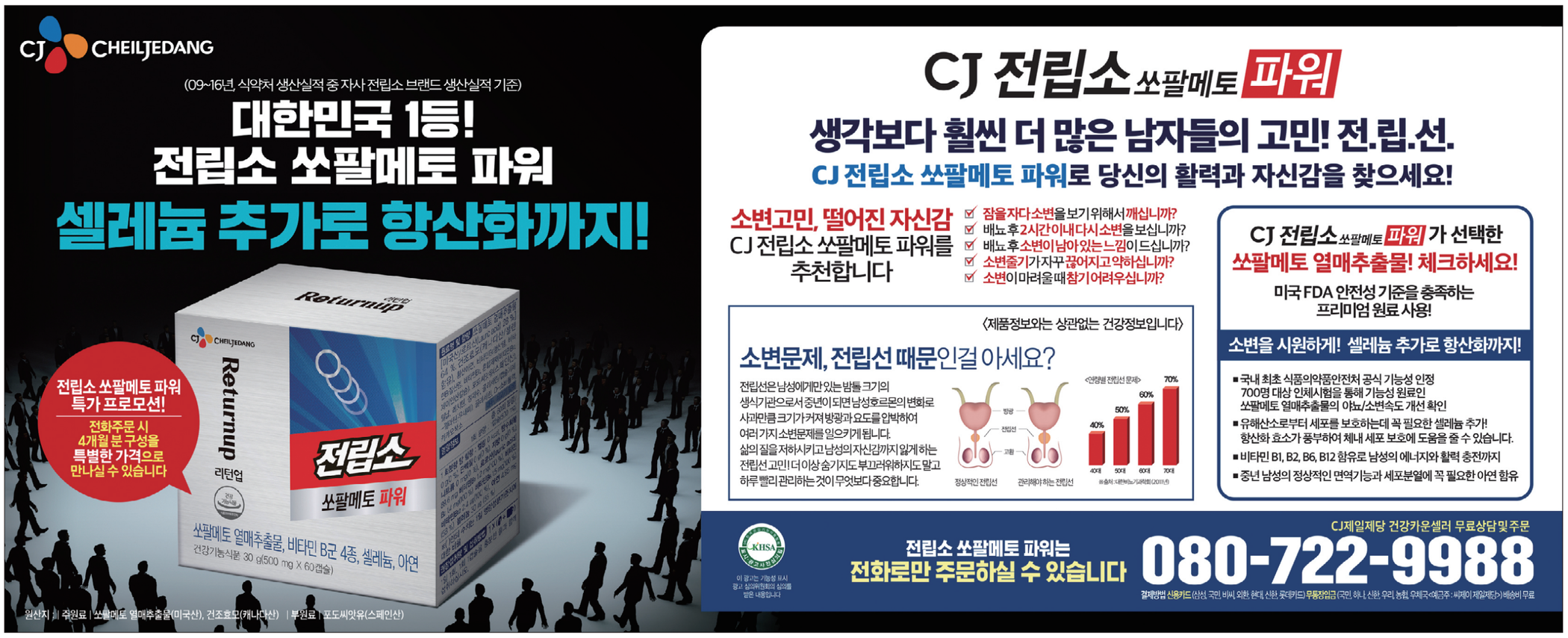
두 사람은 그동안 주변 지인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극비리에 결혼을 준비해 왔다. 김건모의 소속사인 건음기획 관계자도 이날 말을 아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힐 정도다. 김건모는 5일 경기 용인 시민체육공원에서 열린 '슈퍼콘서트'에 참여해서도 결혼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가요계 관계자들은 50대에 접어든 나이에 '늦장가'를 가는 김건모가 그만큼 신중했음을 드러내는 대목 아니겠느냐면서 아낌없는 축하를 보냈다. 김건모와 오랫동안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미우새)에 출연한 가수 이상민은 이날 "방금 '축하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미우새'에 출연해 '김건모 장가보내기 위원회'를 결성한 가수 이무송·태진아는 "(소식을)처음 듣는다"며 놀라워했다. 이무송은 "평소 결혼에 대해 물어보면 '안 한다'고는 하지 않아 '언젠가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러울지 몰랐다"며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

김건모는 1992년 '잠 못드는 밤 비는 내리고'로 데뷔해 '첫인상' '아름다운 이별' '서울의 달' 등 수많은 인기곡을 통해 199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로 꼽힌다. 1995년 3집 '잘못된 만남'은 200만 장 판매고로 그해 한국 기네스북 최다 판매 음반으로 남았다. 최근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 녹화를 마쳤으며, 12월7일과 24일 인천과 부산에서 콘서트를 연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지구에서 야구 최강은?

WS 워싱턴 vs 휴스턴 오늘 7차전
6경기 모두 원정팀의 승리 진기록

워싱턴이 30일(한국시간) 미닛메이드파크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WS·7전4선승제) 6차전 원정경기에서 휴스턴을 7-2로 꺾고 3승3패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했다. 2년 만에 다시 WS 7차전 끝장승부가 펼쳐지게 됐다. 공교롭게도 이번 시리즈에선 '홈팀 패배'라는 희한한 공식이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 31일 같은 장소에서 치러질 7차전 선발로 워싱턴은 맥스 슈어저, 휴스턴은 잭 그레인키를 내세운다. 1-2로 뒤진 6차전 5회초 동점 솔로홈런을 터트리고 먼저 덕아웃에 돌아왔던 애덤 이튼(오른쪽 2번째)이 3-2로 뒤집는 솔로홈런을 치고 뒤따라온 후안 소토(오른쪽 끝)와 함께 기뻐하고 있는 모습. 휴스턴(미 텍사스주) | AP뉴시스